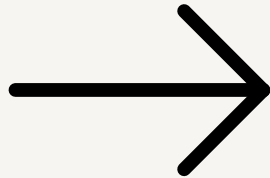


2026 NCCCK 기후정의 아카데미

기후위기 시대, 왜 교회가 응답해야 하는가?

교회와 기후정의 운동

2026년 8월 24일(월) 오후 3시 | 송진순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장, 한신대 겸임교수)



서론

강의 소개 및 대질문 제시

I .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II . 기후정의

왜 '기후정의'인가?

III. 성서의 질문

성서는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묻는가

IV. 교회의 과제

기후위기는 교회의 최우선 문제인가?

V . 실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VII. 인천

인천지역에서 기후정의를 시작한다는 것

마무리

질의응답 및 나눔

대질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구원은 인간의 영혼만을 위한 구원이 되었는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그 천지의 신음에는 침묵하시는가?

아니, 교회는 왜 그 신음 앞에 침묵하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은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향한 책임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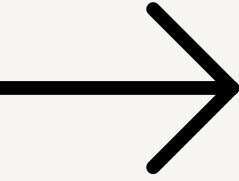
기후정의는 신앙의 본질적 질문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롬 8:22)

I.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표지

기후정의 아카데미 강의 소개

대질문

신앙고백과 창조세계 구원

I .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기후위기는 현재

이미 도착한 기후재난의 현실

지구 비등화

온난화에서 비등화로의 전환

II . 기후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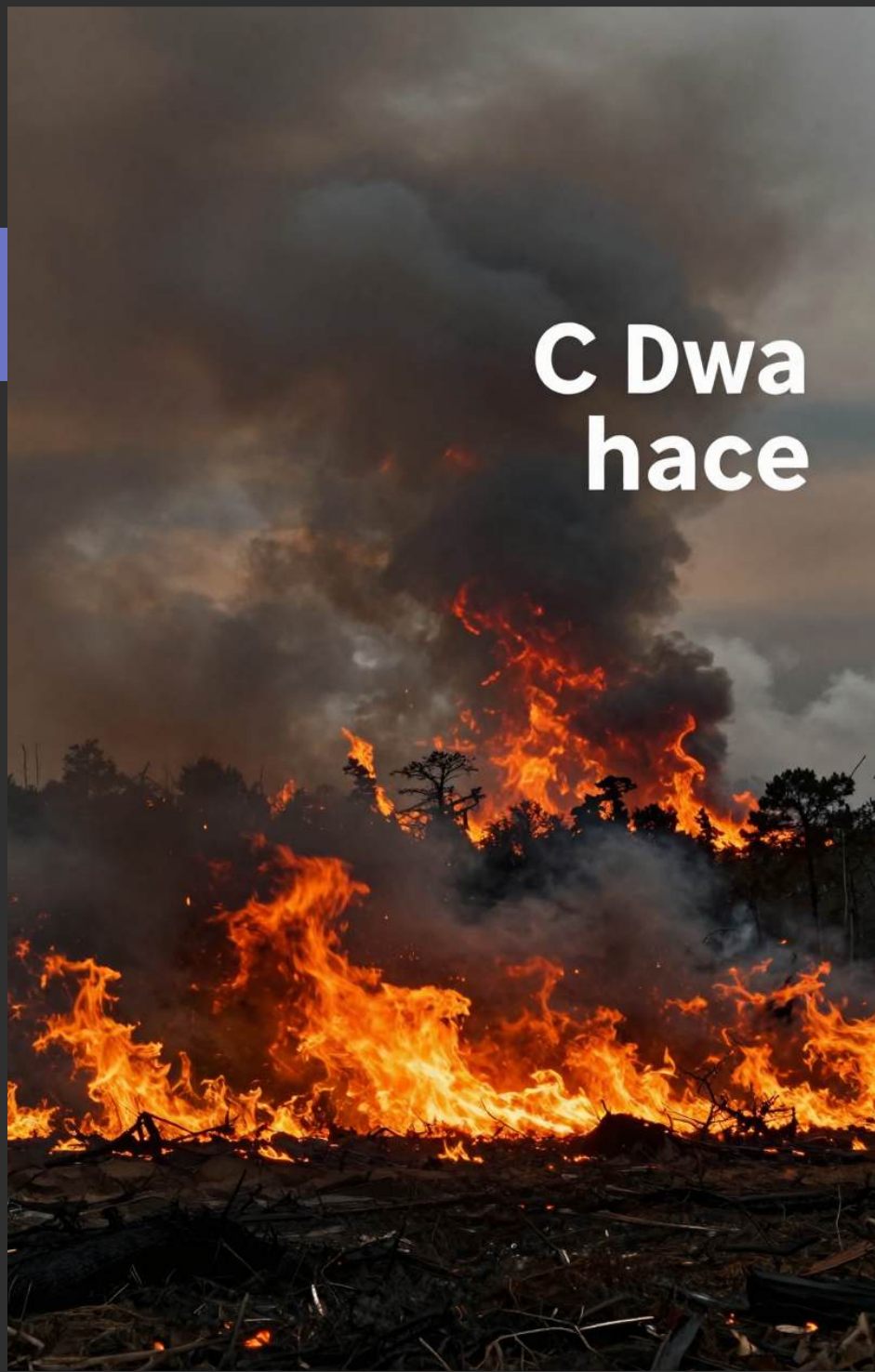
왜 '기후정의'인가?

III. 성서의 질문

성서는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묻는가

V . 교회의 실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도착한 현실입니다.

폭염, 산불, 가뭄, 예측 불가능한 폭우가
매년 더 강하고 더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길어진 여름, 사라져가는 봄과 가을,
극단적 기상현상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이것은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폭염·산불·가뭄·홍수 등 기후재난은 전 세계적으로 빈도와 강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도착한 현실이며, 가장 취약한 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핵심 통계

지구 비등화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경고

UN 발언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2023.7.27)

온난화 → 비등화

지구 온도 상승의 새로운 단계 진입

1.5°C 임계점

돌파 확률 91%, 더 이상 미래가 아님

WMO 데이터

2015-2025년, 가장 뜨거운 11년 기록

신학적 질문

창조세계의 신음 앞에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생태적 회개

문명사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

기후정의

NCCK 기후정의 아카데미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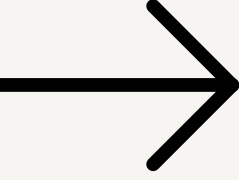
지구 비등화 시대 의 도래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 안토니우 구테흐스 (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 2023년 7월 27일

WMO(세계기상기구)와 UNEP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11년으로 기록되었다.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3°C 상승하였으며, 1.5°C 임계점 돌파 확률은 이미 91%에 달다.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지구 **비등화**(**GLOBAL BOILING**)의 시대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 앞에 무엇을 고백하는가?



대질문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범위

I.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사는가

기후위기는 현재

이미 도착한 기후재난의 현실

지구 비등화 시대

구테흐스: 비등화 시대 선언

계절 붕괴

봄꽃 시기 변화·유럽 폭염 사망

1.5°C의 의미

신학적·과학적 임계점

폭염과 문명

인간 문명의 결과와 회개

도시 열섬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계층



계절 붕괴와 인간의 삶 위협

2026년, 봄꽃 만개 시기는 30년 전보다 2주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벚꽃은 3월에 피고, 단풍은 11월까지 물들지 않습니다.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자연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유럽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는 1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폭염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새로운 정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절이 예전과 같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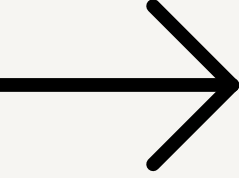
창조 질서의 붕괴 앞에서, 교회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봄꽃 만개 시기: 1990년대 대비 평균 14일 이상 앞당겨짐 (기상청, 2025)

유럽 폭염 초과사망: 2022년 6월 13,000명 이상 (LANCET, 2023)

+ 65세 이상 고령자, 자택사망, 도시권 70% 해당

한국 여름 길이: 2000년대 이후 평균 20일 연장 — 가을과 봄이 사라지고 있다



I.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기후위기 현재
이미 도착한 기후재난의 현실

지구 비등화
온난화를 넘어 비등화 시대 도래

계절 붕괴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1.5°C의 의미
신학적·과학적 임계점의 의미

폭염과 문명
문명사적 생태적 회개의 필요성

기후정의
왜 기후정의인가?

교회의 응답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1.5°C의 신학적 의미

① 가장 뜨거웠던 11년: 2015-2025

WMO와 UNEP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11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 전체가 새로운 임계점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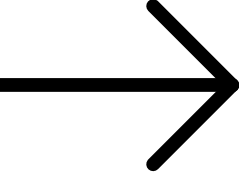
② 1.43°C 상승, 1.5°C 돌파 확률 91%

현재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43°C 상승했습니다. 과학자들은 2030년 이전에 1.5°C 임계점이 돌파될 확률을 91%로 분석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수억 명의 생존과 수천 종의 생명이 걸린 신학적 질문입니다.

③ 1.5°C, 그 너머의 신학적 질문

"1.5°C"는 과학의 언어이지만, 그 안에는 신학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인간의 탐욕으로 무너져 가는 지금, 교회는 이 임계점 앞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창조세계의 신음에 응답하는 것이 곧 신앙 고백입니다.

"1.5°C는 숫자가 아니라 피조세계의 신음이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교회의 응답을 요구하는 신학적 임계점입니다."
— 2026 NCCK 기후정의 아카데미



I.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기후위기 현재

이미 도착한 기후재난의 현실

지구 비등화

온난화를 넘어 비등화 시대 도래

계절 붕괴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1.5°C의 의미

신학적·과학적 임계점의 의미

폭염과 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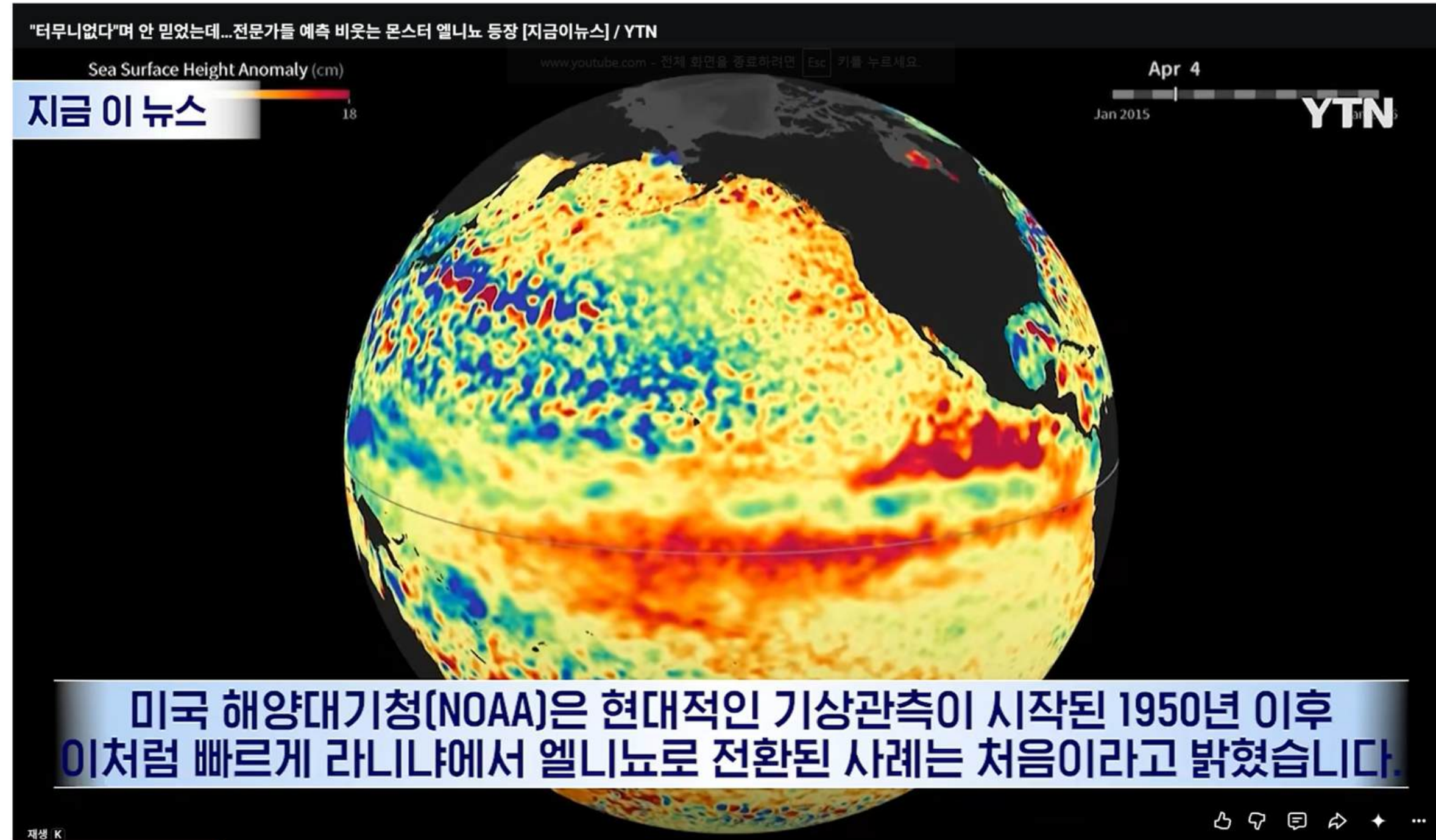
문명사적 생태적 회개의 필요성

기후정의

왜 기후정의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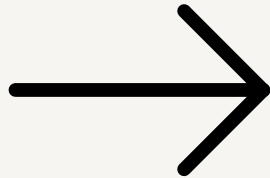
교회의 응답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동태평양에서 진행 중인 몬스터 엘리뇨 26년 8월 2일

- 내년 기온이 최대 1.7°C 상승해 파리협정 한계치(1.5°C)를 돌파할 전망이다.
- 폭염·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급증 악순환에 진입했다. 기후마지노선 붕괴
- 식량, 에너지 공급망, 공중보건 등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반의 연쇄 위기가 경고되었다(WEF).



폭염의 위협
문명에 대한 질문

대질문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구원의 범위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기후위기는 현재
이미 도착한 기후재난의 현실

비등화 시대
지구 비등화 시대의 도래

계절 붕괴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계절 변화

1.5°C 의미
신학적·과학적 임계점의 의미

폭염의 위협
문명사적·생태적 회개의 필요성

폭염의 위협과 문명에 대한 질문

제프 구델(Jeff Goodell)은 2024년 그의 저서에서 폭염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경고하며, 기후위기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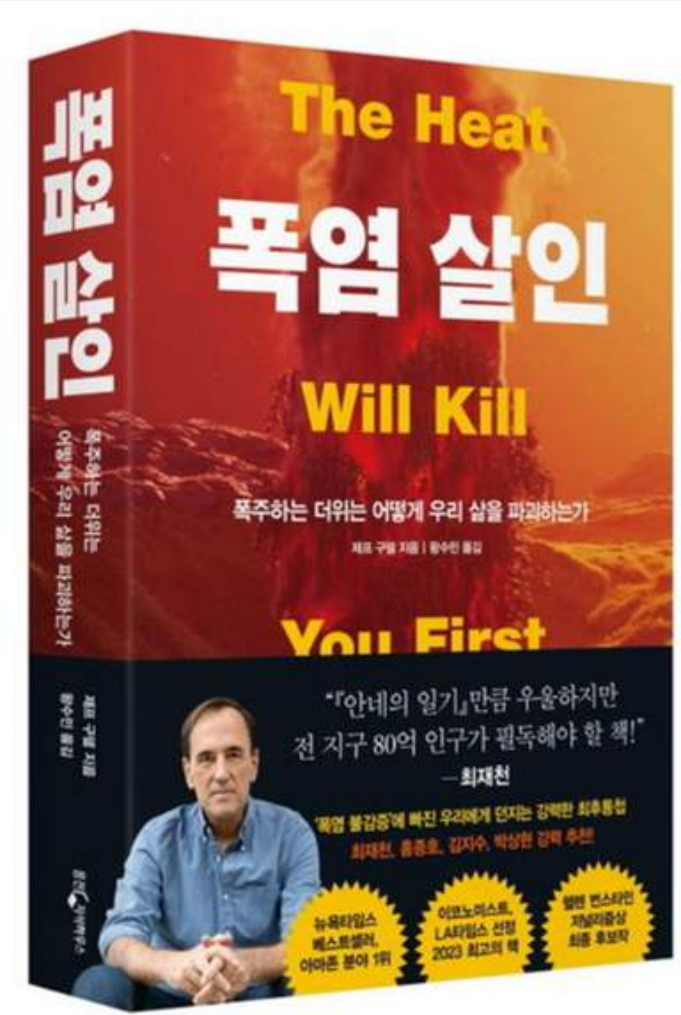
"폭염은 자연의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문명이 선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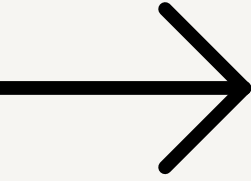
우리는 화석연료 문명, 무한성장 경제, 소비주의 문화 위에 세워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그 문명의 필연적 귀결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는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
문명사적 회개(Civilizational Repentance)와
생태적 회심(Ecological Metanoia)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삶의 방식 전체를 다시 묻는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기후위기는 '자연의 복수'가 아닌 '인간 문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문명사적·생태적 회개 없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 제프 구델, 《THE HEAT WILL KILL YOU FIRST》(2024)





표지

강의 소개 및 주제 안내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기후위기는 현재

이미 도착한 기후재난의 현실

지구 비등화 시대

온난화를 넘어 비등화로

계절 붕괴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1.5°C의 의미

임계점 돌파의 신학적 함의

도시 열섬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계층 고통

기후이주

생태계 파괴와 기후난민



도시 열섬과 사회적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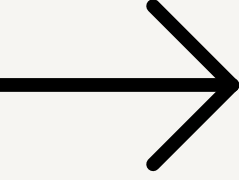
실내 온도는 새로운 계급이다

도시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낮 동안 열을 흡수하고, 수천 대의 에어컨은 실내를 식히는 대신 그 열을 거리로 내뿜습니다. 그 결과, 도심 온도는 인근 농촌보다 3~7°C 더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열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어컨 없는 반지하, 옥탑방, 쪽방에 사는 저소득층과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외부근로자인 건설·배달 노동자, 홀로 사는 노인들은 폭염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기후위기의 고통은 결코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가장 적게 배출한 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고통받는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후정의'를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시 열섬 효과(URBAN HEAT ISLAND): 도심 온도가 주변보다 최대 7°C 높아지는 현상 | 2023년 폭염으로 국내 온열질환자 2,818명 발생, 사망 32명 | 취약계층 피해 집중



강의 개요

기후정의 아카데미 2026

I.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기후위기 현실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II. 왜 기후정의인가

불평등의 구조와 약자의 고통

III. 성서의 질문

창조세계 앞에서 교회는 무엇을 묻는가

IV. 교회의 과제

기후위기는 교회의 최우선 문제인가

V. 실천과 선언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VII. 인천에서 시작

인천지역 기후정의 첫걸음

기후이주와 생태계 파괴

① 기후난민의 등장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상현상, 사막화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최대 12억 명이 기후난민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장 적게 배출하고 가장 많이 고통받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② 생태계 교란과 서식지 파괴

기온 상승과 기상 이변은 수천 종의 동식물 서식지를 빠르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산호초 백화현상, 철새 이동 경로 변화, 수분 매개체 감소로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공동체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③ 폭염, 식량 공황과 유전자 조작식품 문제

극단적 폭염과 가뭄은 전 세계 농업 생산성을 위협하며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킵니다.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으로 유전자 조작식품(GMO)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창조 질서와 식량 주권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먹거리 위기는 기후정의의 핵심 의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생태계 붕괴와 인간 이주, 식량 체계의 위기를 동시에 촉발합니다.

가장 취약한 생명들이 먼저 고통받는 이 현실 앞에서 교회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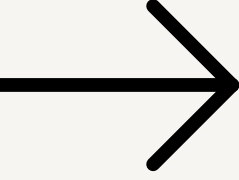
II.

왜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정의'인가?

기후위기의 원인과 피해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들이 고통을 전가하고, 고통받는 자들은 목소리조차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정의'를 말해야 합니다.





II. 기후정의

왜 기후정의인가에 대한 핵심 질문

불평등의 구조

IPCC 보고서 기반 배출 불평등 데이터

기후난민과 약자

얼굴을 가진 고통받는 약자들

기후변화 VS. 기후정의

책임과 피해의 불일치 비교

창조물인가 자원인가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채취주의와 생태부채

EXTRACTIVISM과 ECOLOGICAL DEBT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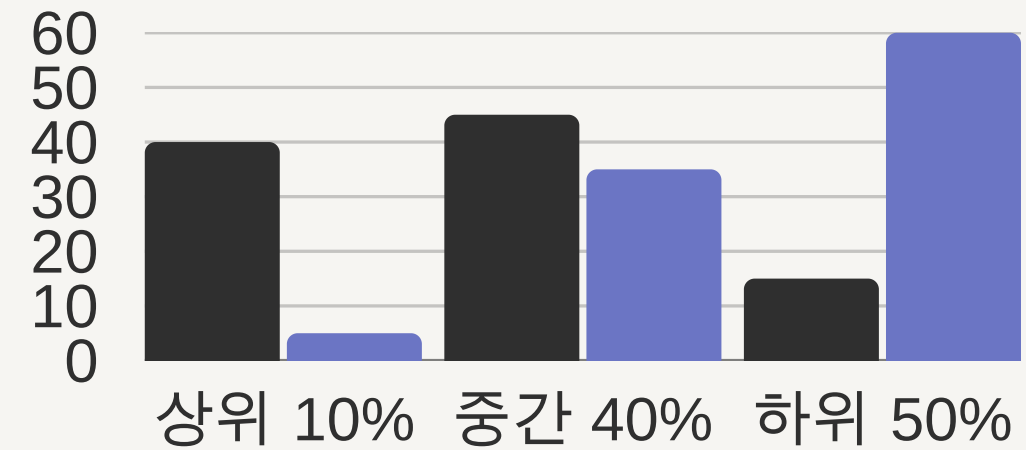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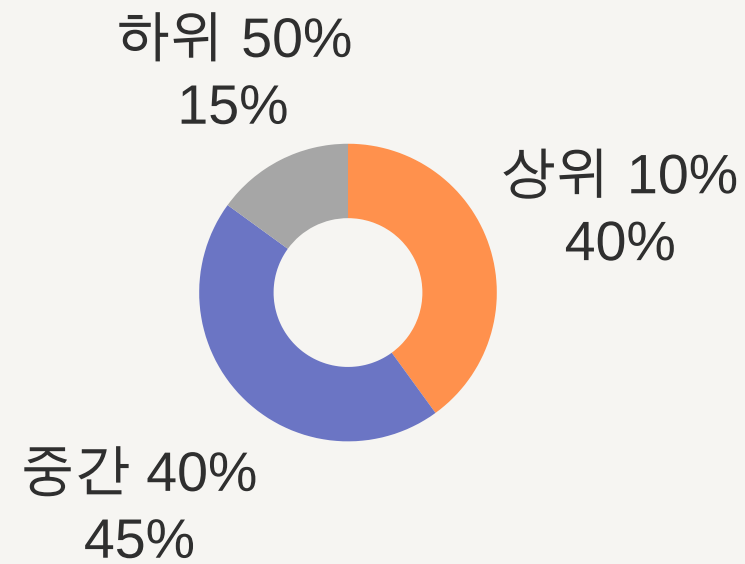
인천의 현주소

기후 불의 현장으로서 인천 조명

성서의 질문

성서는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묻는가

불평등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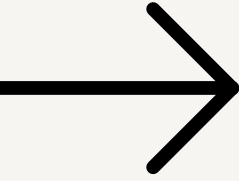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0%의 고소득층이 전체 온실가스의 35~45%를 배출하는 반면, 하위 50%의 저소득층은 단 13~15%만을 배출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피해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적게 배출한 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기후정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배출하고, 누가 고통받는가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2022)

책임과 피해의 불균형을 직시하는 것이 기후정의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I.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II. 왜 기후정의인가

불평등의 구조와 책임

고통받는 약자들 ◀

얼굴을 가진 기후 피해자들

III. 성서의 질문

창조와 구원의 신학적 성찰

IV. 교회의 과제

기후정의와 제자도

V. 실천과 연대

교회의 대안적 공동체성

VII. 인천에서 시작

지역 기후정의 현장

질의응답 및 나눔

함께 나누고 질문합니다



얼굴을 가진 고통받는 약자들

기후위기는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것은 **구체적인 얼굴을 가진 고통**입니다.

폭염 속 건설 현장의 노동자, 에어컨 없는 방의 독거노인,

가뭄과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기후난민들—

이들의 신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 산호초의 죽음, 멸종 위기에 처한 생명들—

피조세계 전체가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롬 8:22)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책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게 배출한 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기후정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이 얼굴들 앞에 서야 합니다.



표지
기후정의 아카데미 강의 소개

대질문
신앙고백과 창조주 하나님

I.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기후위기 → 기후정의
책임과 피해의 불일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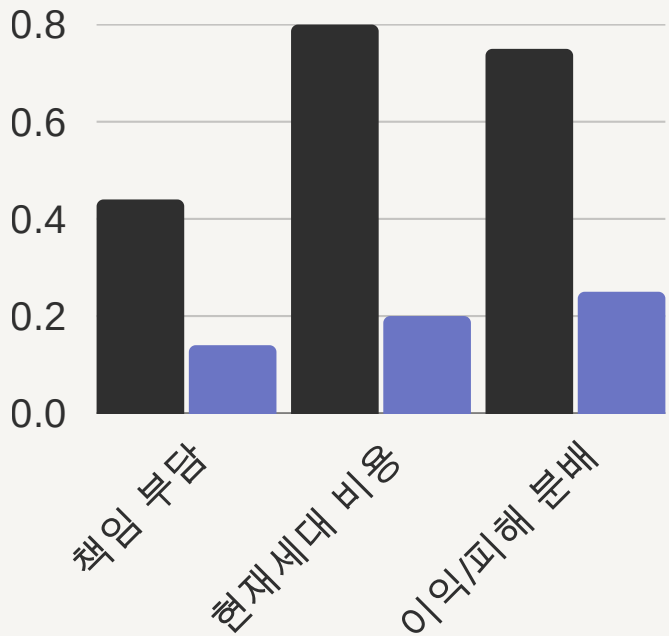
II. 왜 기후정의
불평등 구조와 약자들의 고통

III. 성서의 질문
창조세계와 교회의 책임

IV. 교회의 우선순위
기후위기는 교회의 최우선 문제

V. 교회의 실천
대안적 공동체와 선언

기후위기에서 기후정의로



'기후위기'는 자연현상을 다루지만,
'기후정의'는 책임과 피해의 불균형 구조를 직시합니다.
누가 배출했고, 누가 고통받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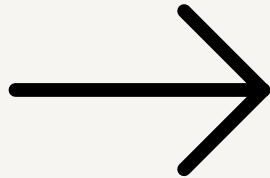
【현재세대 vs. 미래세대】

현재세대의 풍요와 소비가 미래세대에게 기후 비용을 전가합니다.

【인간 vs. 비인간 생명】

인간 문명의 이익을 위해 비인간 생명과 생태계가 일방적 부담을 집니다.
기후정의는 이 불일치를 바로잡는 신앙적·사회적 과제입니다.

기후위기(CLIMATE CHANGE): 자연과학적 현상 기술 /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책임·피해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 제기 | 상위 10% 온실가스 배출 35-45%, 하위 50% 배출 13-15% (IPCC) | 2026 NCCK 기후정의 아카데미



II. 왜 '기후정의'인가?

창조물인가, 자원인가

섹션 주제

기후정의의 신학적 근거

창조 VS 자원

세계를 바라보는 두 시선

채취주의 문제

자원화의 구조적 죄

생태부채

누가 빚을 지고 있는가

성서의 응답

창조세계와 하나님의 뜻

교회의 역할

기후정의운동과 제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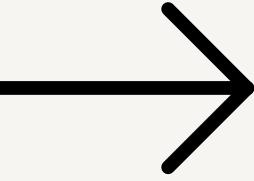
실천 과제

교회의 생태적 전환 방향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자원인가?

1	석탄 → '자원' / 에너지원으로 환원됨
2	숲 → '목재' / 생명 공동체에서 상품으로 전락
3	강 → '수자원' / 흐르는 생명에서 개발 대상으로
4	동물 → '축산물' /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소비재로
5	질문: 언제부터 창조물이 '자원'이 되었는가? — 이 전환이 기후위기의 뿌리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을 위한 '자원'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피조물 공동체입니다.
채취주의(**EXTRACTIVISM**)는 창조세계를 수단화하고, 생태부채를 쌓아왔습니다. 교회는 이 언어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표지

기후위기 시대, 기후정의 운동 소개

대질문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범위

I.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II. 왜 기후정의인가

불평등 구조와 약자들의 고통

채취주의와 생태부채

현재 페이지: 핵심 개념 정의

III. 성서의 질문

가인의 질문과 로마서 8장

IV. 교회의 우선순위

생태적 회심과 제자도

V. 교회의 실천

대안 공동체성과 선언

채취주의와 생태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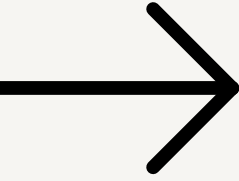
📌 채취주의 (Extractivism)

채취주의란 자연을 인간의 필요를 위해 무한히 추출·착취할 수 있는 '자원의 저장고'로 간주하는 세계관이자 경제 논리입니다. 석탄, 석유, 광물, 산림, 수자원 등 모든 자연을 상품화하고 이윤을 위해 소비하는 구조적 패턴으로, 현대 산업 문명의 근간을 이루며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라,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인간의 자원'으로 보는 신학적·세계관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 생태부채 (Ecological Debt)

생태부채란 선진국과 고탄소 소비 집단이 자연 생태계와 취약 공동체에 누적시켜 온 환경적 부채입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자들이 기후 피해는 가장 적게 받고, 가장 적게 배출한 저소득층·개발도상국·미래세대가 그 대가를 치르는 구조입니다. 지불 주체: 고탄소 산업국가 / 다국적 화석연료 기업 / 과잉소비 상위 계층

"언제부터 창조물이 '자원'이 되었는가?" — 채취주의는 생태 파괴의 논리이며, 생태부채는 그 결과로 쌓인 불의입니다. 교회는 이 구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강의 목차

기후정의 아카데미 강의 개요

I.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II. 기후정의란?

왜 '기후정의'인가?

III. 성서의 질문

성서는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묻는가

IV. 교회의 응답

기후위기는 교회의 최우선 문제인가?

V. 실천 과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VII. 인천 현장

인천지역에서 기후정의를 시작한다는 것

질의응답

함께 나누고 질문합니다



인천의 생태적·사회적 현주소

인천에서 기후 불의의 현장을 봅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을 공급하면서 인천 지역민에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집중시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서울·경기의 폐기물을 인천이 감당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상징입니다.

강화도와 영종도의 갯벌은 수백만 철새와 해양생물의 서식지이자 탄소흡수원입니다. 그러나 개발과 매립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묻습니다: 누가 혜택을 누리고, 누가 피해를 감당하는가?

영흥화력발전소 — 수도권 전력 공급, 인천 주민 피해 집중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 서울·경기 폐기물, 인천 부담

강화·영종 갯벌 — 탄소흡수원이자 생태계 보고, 개발 위협 지속

> 기후 불의의 현장으로서 인천을 직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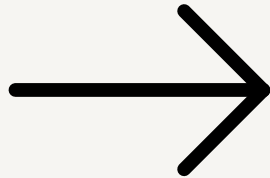
III.

성서는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묻는가

성서는 기후위기의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창조세계의 신음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성서가 던지는 근본적인 물음을 함께 듣습니다.





III. 성서의 응답

창세기 4장 – 기후위기 시대 교회에 주는 경고

성경 본문

창세기 4:9 – 하나님의 직접적인 질문

신학적 성찰

방관자적 태도와 교회의 책임

현대적 적용

기후위기 앞에 선 교회의 자리

질문의 대상

오늘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물음

교회의 응답

침묵인가, 행동인가

기후정의

고통받는 이웃과 피조물을 향한 연대

핵심 메시지

방관은 공모다 –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가인의 질문과 하나님의 들으심

“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 — 창세기 4:9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후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에 묻고 계십니다.

"기후재난으로 신음하는 너의 이웃은 어디 있느냐?

폭염 속에 쓰러지는 노동자는, 홍수로 삶을 잃은 농민은,

서식지를 잃은 생명들은 — 어디 있느냐?"

가인의 대답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였습니다.

교회는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창 4:10).

오늘도 훼손된 땅, 신음하는 피조물, 고통받는 약자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닿고 있습니다.

교회의 방관은 곧 공모입니다. 기후정의운동은 이 물음에 대한 신앙적 응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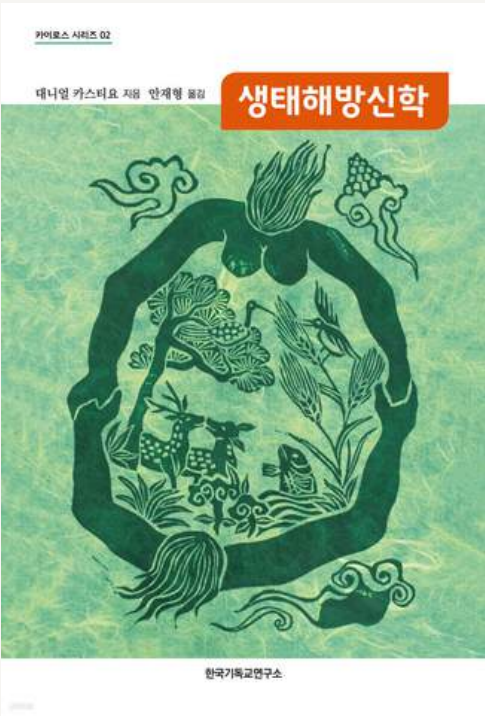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창 4:9) — 이 질문은 오늘 기후위기 앞에 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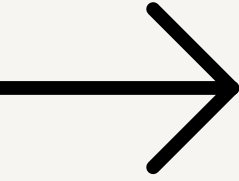
기후정의운동은 부가적 사회선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의 본질적 응답입니다.

가인, 그의 후손들은 도시 건설자가 되어 구리와 쇠를 단련합니다. 그가 이룩한 기술문명은 인간의 위대한 성취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 이면을 드러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피흘림 위에 세워진 문명에는

‘타자를 위한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III. 성서

성서는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묻는가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왜 기후정의인가

불평등한 책임과 피해의 구조

성서의 질문

가인의 질문과 하나님의 들으심

▶ 땅의 연결

죽임당한 인간과 훼손된 땅

교회의 책임

기후정의는 본질적 제자도

교회의 실천

생태적 회심과 대안 공동체

인천의 현장

기후정의를 시작한다는 것



죽임당한 인간과 훼손된 땅의 연결

노동자의 죽음, 가난한 이웃의 고통, 파괴된 자연의 신음은
서로 분리된 사건이 아닙니다.

땅이 훼손될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는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음하는 피조세계와 짓밟힌 생명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자리에 교회도 함께 서야 합니다.

죽임당한 인간과 훼손된 땅 앞에서 침묵은 방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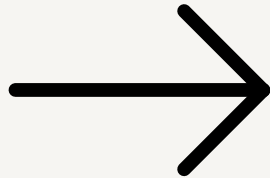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창세기 4:11)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의 피와 훼손된 땅의 신음 모두를 들으신다.

교회의 책임은 그 들으심의 현장에 함께 하는 것이다.

가인, 그의 후손들은 도시 건설자가 되어 구리와 쇠를 단련합니다. 그가 이룩한 기술문명은
인간의 위대한 성취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 이면을 드러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피흘림 위에 세워진 문명에는 **‘타자를 위한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III. 성서와
위기
성서는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묻는가

로마서 8장

세 가지 신음의 교차점

피조물의 신음

만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음

인간의 탄식

우리 자신도 탄식하며 양자됨을 기다림

성령의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

교회의 자리

탄식의 현장에 함께 서는 교회

기후정의

신음하는 피조세계와 연대하는 신앙

제자도

고통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로마서 8장: 세 가지 신음

💧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 롬 8:22

- ① 피조물의 신음: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멸종 위기 — 창조세계 전체가 탄식하고 있다.
- ② 인간의 탄식: 기후난민, 폭염 속 노동자, 저소득층과 노인 — 약자들의 고통이 집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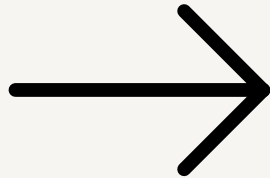
↔ 세 가지 신음이 교차하는 자리

③ 성령의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께서는 신음하는 피조세계 한가운데 계신다.
이 세 신음이 교차하는 바로 그 자리가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이다.

✚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

로마서 8장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의 소명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탄식의 현장을 외면하는 교회는 성령의 탄식에 귀를 닫는 것이다. 기후정의 운동은 이 신음에 응답하는 신앙의 행동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I . 만물의 신음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II . 기후정의

왜 '기후정의'인가?

III. 성서의 질문

성서는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묻는가

기후정의와 제자도

기후정의운동은 본질적 제자도이다

IV. 교회의 과제

기후위기는 교회의 최우선 문제인가

V . 실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VII. 인천

인천지역에서 기후정의를 시작한다는 것

마무리

질의응답 및 나눔

기후정의운동은 제자도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고통이 집중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들 곁에 머무셨습니다.
오늘 기후위기의 시대, 그 고통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폭염 속 거리에서 일하는 노동자, 냉방도 없는 반지하의 노인,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기후난민, 신음하는 피조세계—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기후정의운동은 교회의 '부가적 사회선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본질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창조세계를 돌보고, 고통받는 이웃과 연대하며,
불의한 구조에 맞서는 것—이것이 곧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길이다."
기후정의는 선택이 아닌 복음의 요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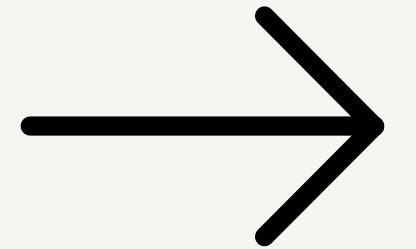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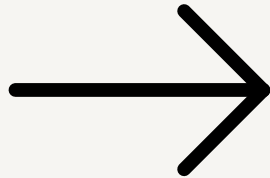
기후위기는 교회의 '최우선의 문제'인가?

교회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배, 전도, 재정, 건물 유지 —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창조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IV. 교회와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교회의 최우선 문제인가?

도입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자리를 묻다.

우선순위 도전

교회가 진정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장과 축복

'성장'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는 문제.

생태 전환

환경에서 생태로의 신학적 전환.

제자도

기후정의는 본질적 제자도이다.

실천 과제

교회 공동체의 구체적 응답과 행동.

결론

창조세계를 위한 교회의 선언.

교회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환

① 예배·전도·재정·건물 vs. 창조세계 붕괴

교회는 오랫동안 예배, 전도, 재정 확충, 건물 유지를 핵심 사역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조세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이 우선순위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창조세계의 붕괴를 외면한 채 드리는 예배는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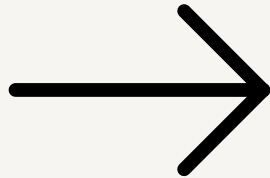
②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시하는 문제

교회 성장, 경제 성장, 국가 성장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동일시하는 신학은 무한 성장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성장 중심 문명이 바로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라는 논리가 창조세계를 착취하고 있다면, 교회는 이 신학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③ 환경 → 생태 전환의 필요성

'환경'은 인간을 둘러싼 배경이지만, '생태'는 인간이 그 안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환경 보호에서 생태적 회심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용어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 중심에서 피조물 공동체 중심으로의 신학적·실천적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라면, 창조세계의 신음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는 부가적 사회선교가 아닌 본질적 복음의 문제입니다.



TITLE

2026 NCCK 기후정의 아카데미

대질문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범위

I.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II. 왜 기후정의인가

불평등 구조와 고통받는 약자들

III. 성서의 질문

성경이 기후위기 앞에서 묻는 것

IV. 교회의 우선순위

기후위기는 교회의 최우선 문제인가

생태적 회심

ECOLOGICAL METANOIA – 전환의 방향

V. 교회의 실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태적 회심

4대 방향

- 1

채취에서 돌봄으로 — 땅과 생명을 착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조세계를 경청하고 돌보는 관계로 전환
- 2

소유에서 관계로 — 자원을 소유·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내려놓고, 피조물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회복
- 3

무한성장에서 생명의 충분함으로 — 끝없는 경제 성장의 논리를 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자체가 축복의 삶
- 4

인간중심에서 피조물 공동체로 — 인간 구원의 중심에 두는 신앙에서 벗어나, 모든 피조물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지향

생태적 회심(ECOLOGICAL METANOIA)은 환경 실천을 넘어, 우리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 전체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야 할 회개와 갱신의 여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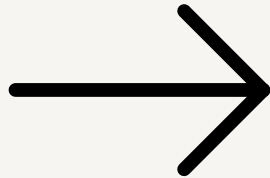
V.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의 부르심과 응답

구조적 죄를 직시하고, 대안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개인 실천
텀블러, 채식, 절전 등 개인 윤리의 한계

구조적 죄
기후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생산 구조
화석연료 기반 생산 체계의 문제

소비 구조
과잉소비와 일회용 문화의 구조적 죄

에너지
불평등한 에너지 구조와 전환의 필요

개발 논리
무한개발 이데올로기와 생태 파괴

회개와 전환
구조적 죄에 대한 교회의 예언자적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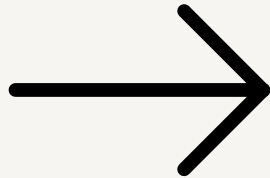
결론
개인 실천을 넘어 구조 변혁으로

개인적 윤리의 한계와 구조적 죄

텀블러를 쓰고, 채식을 하고, 전기를 아끼는 것—이 모든 개인적 실천은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개인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생산·소비·에너지·개발의 구조 속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죄'의 결과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석탄 발전소는 계속 돌아가고,
대기업의 탄소 배출은 줄어들지 않으며,
불평등한 에너지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회는 개인 윤리의 권면을 넘어, 이 구조적 죄에 대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기후정의는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불의한 구조를 변혁하려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생산·소비·에너지·개발의 구조적 죄를 직시하고, 교회는 예언자적 사명으로 구조 변혁에 나서야 합니다.



TITLE
2026 NCCK 기후정의 아카데미

INTRODUCTION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사명

PROBLEM STATEMENT
만물의 신음과 기후재난 현실

MARKET/FIELD ANALYSIS
왜 기후정의인가?

SOLUTION
성서와 신학적 응답

IMPLEMENTATION
교회의 실천 과제

EXPECTED EFFECTS
인천지역 기후정의 실천

CONCLUSION
질의응답 및 나눔

교회의 대안적 공동체성 회복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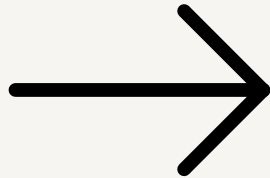
예배: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구원하는가? 창조세계 전체를 품는 예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2

생활: 교회의 소비 방식과 생활양식을 점검하고, 생태적으로 책임 있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합니다.
- 3

지역: 기후위기로 피해받고 신음하는 현장—노동자, 노인, 농민, 이주민—과 함께하는 교회가 됩니다.
- 4

공공성: 불의한 에너지 구조와 개발 정책에 맞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합니다.
-

교회는 단순한 종교 기관이 아닌 대안적 공동체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예배·생활·지역·공공성의 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제자도의 실천이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표지
기후위기 시대, 왜 교회가 기후정의 운동에 나서야 하는가

I.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II. 왜 기후정의인가
책임과 피해의 불균형, 창조물과 자원

III. 성서의 질문
가인의 질문, 로마서 8장, 제자도

IV. 교회의 우선순위
생태적 회심과 전환의 방향

V. 교회의 실천
절기, 공동체성, 선언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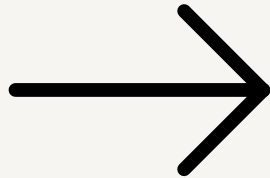
VII. 인천의 현장
기후정의의 구체적 얼굴, 인천에서 시작

마무리
질의응답, 나눔, 감사합니다

절기를 통한 그리스도인됨 회복

- | | |
|---|--|
| 1 | 4월 지구의 날 — 창조세계를 돌아보고, 피조물과의 연대를 고백하는 예배와 생태 실천의 날로 지킨다. |
| 2 | 6월 환경주일 — 한국교회가 함께 드리는 환경주일 예배로, 생태적 영성과 회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눈다. |
| 3 | 9~10월 창조절 — 세계교회가 함께하는 피조물의 신음에 귀 기울이며 생명의 충분함을 예배로 고백한다. |
| 4 | 9월 기후정의주일 — 기후위기 약자들과 연대하고, 교회가 기후정의 운동의 주체로 나아간다. |

교회력의 절기는 그릿스도의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피조세계와 함께 탄식하고, 회개하며, 희망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절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됨을 회복하고, 기후정의를 향한 교회의 발걸음을 함께 내딛읍시다.



표지
기후위기 시대, 왜 교회가 나서야 하는가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왜 기후정의인가
불평등의 구조와 고통받는 약자들

성서의 질문
창조세계 앞에서 성경이 묻는 것

교회의 우선순위
기후위기는 교회의 최우선 문제인가

교회의 역할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실천 과제
교회의 선언과 구체적 실천 행동

인천의 현장
인천에서 기후정의를 시작한다는 것

실천 과제와 교회의 선언

① 생태적 예배와 영성 형성

창조절 예배, 지구의 날·환경주일 등 생태 절기를 교회력에 통합하고, 설교·기도·찬양 안에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는다. 소비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 절제·돌봄·감사의 영성을 공동체 안에서 형성해 나간다.

② RE100 및 햇빛발전협동조합 참여

교회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햇빛발전협동조합에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전환에 동참한다. 에너지 자립 교회 모델을 지역사회에 제시하며, 화석연료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는 구체적 첫걸음을 내딛는다.

③ 교회 재정의 녹색 전환 및 생태 약자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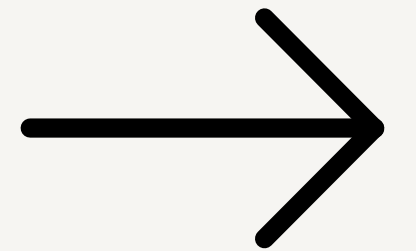
교회 예산 일부를 기후정의 사업과 생태 취약계층 지원에 배정한다. 화석연료 관련 금융 투자를 철회(Divestment)하고,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농민·노동자·기후난민과의 연대 사업을 교회 사명으로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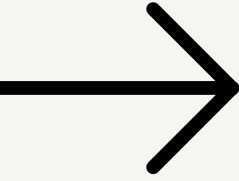
"기후정의운동은 부가적 사회선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의 본질적 제자도입니다."

VII

인천지역에서 기후정의를 시작한다는 것

지역의 구체적 현장에서 기후정의를 실천하다





Ⅶ. 인천에서 시작

기후정의의 현장, 인천

영종도 갯벌

신학적 성소로서의 의미

기후 불의 현장

영흥화력발전소와 매립지

지역의 얼굴

구체적 기후정의의 출발점

생태적 연대

갯벌 생태계 보전 운동

교회의 역할

창조 보전의 신학적 책임

공동체 행동

인천 기후정의 10년행동

질의응답

함께 나누고 질문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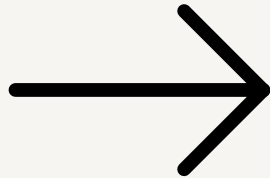


인천, 기후정의의 현장

영종도 갯벌은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이 깃들고, 철새가 쉬어가며, 어민의 삶이 이어지는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살아 숨 쉬는 신학적 성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갯벌은 개발과 매립,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은 기후 불의의 현장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갯벌 훼손—
이 지역의 구체적인 얼굴이 곧 기후정의의 출발점입니다.
기후정의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발 아래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INCHEON'S TIDAL FLATS ARE A THEOLOGICAL SANCTUARY — A LIVING TESTIMONY TO GOD'S CREATION. CLIMATE JUSTICE BEGINS HERE, IN THIS PLACE, WITH THESE PEOPLE AND THIS LAND.



표지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기후정의 운동

대질문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영혼만의 구원?

I.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II. 왜 기후정의인가
불평등 구조와 생태부채

III. 성서의 질문
기후정의운동은 제자도이다

IV. 교회의 우선순위
생태적 회심과 전환

V. 교회의 실천
대안적 공동체성과 절기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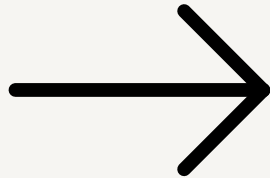
VII. 인천에서 시작
기후정의의 현장, 인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단지 인간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는 피조세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었듯,
훼손된 땅과 기후재난으로 고통받는 생명들의 신음이 하나님께 닿습니다.
성령은 피조물의 탄식 가운데 함께 탄식하시며,
십자가는 인간과 비인간 생명, 하늘과 땅 사이의 화해를 선포합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3)
창조 안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기억하며, 교회는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화해의 사역에 부름받았습니다.



I. 만물의 신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II. 기후정의

왜 '기후정의'인가?

III. 성서의 질문

성서는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묻는가

IV. 교회의 우선순위

기후위기는 교회의 최우선의 문제인가?

V. 교회의 실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VII. 인천의 현장

인천지역에서 기후정의를 시작한다는 것

교회의 참여

기후위기 참여의 의미

질의응답

함께 나누고 질문합시다

교회의 기후위기 참여의 의미

① 지구 구원의 오만이 아니다

교회가 기후위기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이 지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회복과 화해의 일에 겸손히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자리입니다.

②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선교

기후정의운동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일부입니다. 신음하는 피조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고통받는 약자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기후위기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선교의 본질적 표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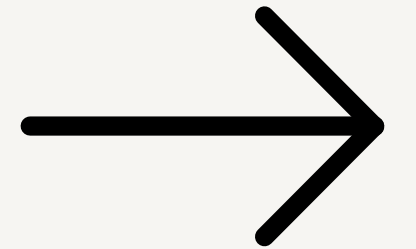
③ 제자도와 복음 고백

기후정의에 헌신하는 것은 부가적인 사회참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는 신앙고백은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 고백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교회의 참여는 겸손한 청지기 사명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제자도와 복음 고백의 실천입니다.

질의응답

목회 현장에서의 기후정의 실천 고민을 함께 나눠주세요.
인천 교회 연대 '기후정의 10년행동'의 첫걸음을 함께 모색합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나눔이 이 자리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